

사고구조 변환법을 통한 쓰기와 문법 지도의 효과*

김 완 호
(원광보건대학교)

Kim, Wan-Ho. (2005). The effect of teaching English writing and grammar instruction through the Thought Structure Conversion Method. *STEM Journal*, 6(2), ---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Thought Structure Conversion Method(TSCM)' for teaching writing and grammar to academically underprepared college students. The TSCM is an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o convert the learners' thought structure from the original Korean word order to the English word order. It is one of the two core operational systems which construct the 'Five Dimensional English Learning Method' with the Vocal Structure Conversion Method(VSCM). Tests through 'Test and Retest Method' an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fifty subjects to analyze the effects of TSCM. The subjects participating in this experimental study for 15 week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of their writing abil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 the value of using this method for teaching writing and grammar to college students of low-level English.

I. 서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에 쏟는 비용과 시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파이낸셜 뉴스(2005. 07. 15)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유학과 연수 비용으로 해외에 지출된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여기에다 영어 학원과 과외비, 그리고 기타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영어 교육 관련 비용은 참으로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TOEIC과 마찬가지로 TOEFL에 들어가는 응시료와 응시자 수도 우리

* 이 논문은 2005년도 원광보건대학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나라가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일보(2005. 07. 14) 보도에 의하면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 까지 TOEFL 시험에 응시한 한국인이 모두 8만 5천10명으로 전 세계 227개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영어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은 아시아에서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TOEFL 응시자들의 성적은 CBT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213점으로 148개국(응시자 30명 이하의 국가 제외) 가운데 103위를 차지,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한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저효율’의 영어교육이 지속되고 있는가? 다양한 원인 분석이 있겠지만, 이에 대해 원동연(2000)은 ‘5차원 영어학습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원인을 다음의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영어를 영어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영어는 기본적으로 ‘S+V+O’구조인데 비해 한국어는 ‘S+O+V’구조다.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사고구조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서를 무시한 채 영어를 자꾸 우리말 순서에 맞추려고 하니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영어를 공부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영어 지식 그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만으로도 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대한 지식 그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보다 복잡한 문법과 어려운 어휘를 익혀 영어 지식의 양을 늘리려고 하다보니 고비용 저효율의 학습이 되는 것이다.

셋째, 외국인을 만났을 때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만을 생성해 내려고 하는데서 오는 강한 심리적 압박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어 교수 학습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에 소개된 교수-학습 방법들은 전통적인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부터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전신반응 교수법, 침묵식 교수법, 자연 교수법, 암시 교수법, 내용중심 교수법, 그리고 총체적 언어 교수법 등 참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교수 방법들 중 상당수는 영미권에 살고 있는 ESL 상황의 학습자들에게나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이지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EFL 상황에 있는 우리의 영어교육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5차원 전면교육’을 주창한 원동연(2000)에 의해 고안된 ‘5차원 영어학습법’을 EFL 상황에 있는 우리의 영어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소개하고자 한다.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과 ‘발

성구조 변환 학습법'의 두 가지 운영 체계를 핵심적인 원리로 하고 있는 5차원 영어학습법은 영어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4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현재 전국의 초·중등 교사들의 직무연수를 통하여 보급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지만 영어에 대한 흥미와 학습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초급 수준의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게 하는 '사고구조 변환법'에 의한 영어 쓰기와 문법 지도의 효과를 사전 사후 테스트와 설문 조사를 토대로 분석해 봄으로써 5차원 영어학습법이 EFL상황에 있는 우리의 영어교육 현장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5차원 전면교육의 이해

'5차원 영어학습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5차원 전면교육'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동연(2000)에 의해 주창된 5차원 전면교육은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능력, 인간관계 능력 등 인간의 능력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교육하여 각 개인과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우리 사회와 세계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실력과 지도력을 기르자는 교육운동이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다.

5차원 전면교육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방법론의 전환이다. 학업이든 사업이든 무조건 열심히, 집중해서, 오랜 시간 한다고 해서 능률과 실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적합한 방법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올바른 교수 학습 방법을 위해 원동연(2000)은 '100/10 학습원리'와 '학문의 9단계'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100/10 학습원리'는 외국어 학습을 포함해 인간의 모든 지적활동에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이다. 만약 한정된 시간에 공부해야 하는 것이 100 가지라고 할 경우, 우리는 보통 이 100가지를 순서대로 하나하나 학습해 가는 것이 보통이다. 마치 영어 문법을 배우면서 명사, 관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등의 목차 순으로 처음부터 공부하는 것과 같은 보통의 학습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더 효과적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많은 것 10가지를 우선 학습해 가는 것이다. 물론 이 10

개는 나머지와 가장 연결 관계가 많은 기본적인 것으로 이 10개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 나머지 90개를 배우고 가르친다면 매우 큰 학습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100/10 학습 원리’라고 한다.

‘학문의 9단계’는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핵심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입수·심화·표출의 정보 활용 과정을 구체적인 학습 단계로 나뉘보면 각 과정이 다시 3개씩, 전체적으로 9단계의 틀로 나누어진다. 즉, (1)속해독서법, (2) 글 분석법, (3)글 감상법, (4)고공 학습법과 상관관계 학습법, (5)객관화·주관화 학습법, (6)개념 심화 학습법, (7)평면적인 글쓰기, (8)입체적인 글쓰기, (9)실생활 글쓰기와 같이 9단계로 구분된다. 이 학문의 9단계 원리는 언어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속해독서법’에 의해 독해 능력을 강화하여 정보처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다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단면적인 교육에서 다면적인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은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등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가 약하면 그것만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아서 전체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진정한 실력과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의 5가지 요소를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5차원 전면교육에서는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능력, 인간관계 능력 등 5가지 요소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커리큘럼들을 각각 5가지씩 2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커리큘럼으로는 정보처리능력, 전체를 보고 부분을 이해하는 능력,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화 능력, 외국어 능력, 자연세계의 이해 능력 등 ‘지혜위주의 5가지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원리에 바탕을 두고 ‘지력’ 부분의 외국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교수 학습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5차원 영어학습법’이다.

2. 5차원 영어학습법의 운영 체계

5차원 전면교육 원리에서 올바른 방법론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처럼, 영어의 교수 학습에 있어서도 올바른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다. 영어를 배우는 바른 방법론이란 영어의 구조와 원리를 잘 알고 그것에 맞게 접근해 가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인이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영어를 자꾸 우리말 어순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구조를 깨뜨려서 서로의 틀에 맞추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원동연(2000)은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5차원 영어 학습법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운용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 첫째는 한국어식 사고 체계를 영어식 사고 체계로 전환시켜주는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이고, 둘째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발음되는 발성구조를 익히는 ‘발성구조 변환 학습법’이다.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은 S+O+V식 한국인의 사고구조를 S+V+O의 영어식 사고구조로 자연스럽게 변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학습방법이다. 사고구조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말 구조와 영어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를 잘 이해해야 한다. 영어의 언어 구조를 잘 파악함으로써 사고구조를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의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미 단위(sense group)’ 중심의 사고구조 변환 훈련만 가지고는 힘들다. 사고구조 변환 훈련과 더불어서, 한국인의 발성구조를 영어식으로 바꾸어 주는 ‘발성구조 변환 학습법’이 필요하다. 발성구조를 영어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무성음인 한국인의 발성 구조를 영어식의 유성음 구조로 바꿔주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영어식으로 사고하고 발음하게 만드는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과 발성구조 변환 학습법을 핵심적인 두 가지 운용체계로 하는 것이 바로 ‘5차원 영어학습법’이다.

3.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의 원리

1) 1대 원리

사고구조 변환법의 핵심적인 문법 체계인 ‘1대 원리 5소 원칙’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문법지도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관점을 살펴보자. 영어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두 가지의 큰 줄기는 문법과 같은 언어의 구조를 강조하는 접근 방식과, 이에 반하여 언어의 구조 보다는 언어의 내용과 의미를 강조하는 접근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을 큰 축으로 하여 문법지도가 학습자들의 언어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혜숙, 1998).

문법 번역식 교수법과 같은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문법을 문장 내에

서 낱말의 조직과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 체계로 보아 문장 단위의 문법 교육을 도입한다. 그러나 직접교수법(Direct Method)이나 자연교수법(Natural Approach)과 같이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영어교육에서는 문법을 언어형태(form/structure)와 의미(meaning/semantics)의 연관성, 언어 형태와 화용론적 상황(pragmatics/social context)과의 연관성, 의미와 화용론적 상황과의 연관성을 모두 고려한 규칙으로 본다. 그러므로 언어습득에서 명시적 문법 교육은 제한된 역할만을 하며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Krashen & Terrell, 1983; Krashen, 1993).

이 두 견해에 대한 절충적인 입장으로써 형태에 초점을 맞춘 제 2 언어 입력은 목표어 가설 형성과 검증에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 있다(Ellis, 1993; Rutherford, 1987). 또한 Ellis(1989)는 그의 다른 연구에서 문법지도를 받는 교실 학습자는 자연 학습자들에 비하여 짧은 기간동안에 높은 습득 수준에 도달하며 더 성공적으로 언어습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절한 문법지도가 언어습득의 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사소통 언어교수의 주창자인 Wilkins(1976)도 목표언어의 문법체계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목표언어의 문법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으로는 창의적 언어사용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배두본(2002)도 이와 같은 절충적인 입장에서 영어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순과 같은 기본적인 통사적 배치(syntactic configurations)의 연습이 필요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식적 표현의 습득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절충적인 입장에 있는 이들의 연구는 의사소통적이며 의미에 초점을 맞춘 언어교육이 필수적이지만 목표어에 대한 접촉만을 통해서도 효율적인 언어지식을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문법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차원 영어학습법의 사고구조 변환법은 배두본(2002)이 지적한 것처럼 어순과 같은 기본적인 통사적 배치를 중심으로 영어의 문장 생성 원리를 익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4가지 기능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향상시키는 교수 학습방법이다. 앞에서 설명한 ‘100/10 학습원리’를 영어에 적용했을 때 영어의 통사구조와 문법의 핵심은 1대 원리와 5소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원동연, 2000).

이 1대 원리 5소 원칙을 익히는 것은 영어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고교에서 배운 영어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영미인들이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영어 문장을 조립 배열하여 사용하는가를 배우는 기본적인 과정이다.

그러면 영미인들은 영어문장을 어떤 순서로 조립 배열하는가? 영어의 어순에 관한 기본 문형으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문장 5형식을 들 수 있

다. 영어의 문장 5형식은 Onions(1904)에 의해 제안된 이래 지금까지 학교 영문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Quirk, Greenbaum, Leech & Svartvik(1985)과 Greenbaum & Quirk(1990)는 여기에 2개의 문형을 더하여 7형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Hornby(1974)는 25개의 영어 기본 문형을 설정하고 이들을 세분화하여 90여개의 문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누구의 영어 기본 문형을 택하든, 영어는 결국 1개의 큰 원리에 의해 조립 배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영어 문장은 결국 1형식(S+V)이며, 이와 같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에 궁금함이 있는 경우 영미인들은 whom(누구에게), what(무엇을), where(어디에), why(왜), how(어떻게), when(언제)과 같은 순서로 추가적인 정보를 배열 한다.”는 원리로 원동연(2000)은 이를 ‘영어의 1대 원리’라고 칭하고 있다. Onions(1904)가 의미적 특성에 따라 영어동사를 5가지 하위범주로 나눈 문장 5형식을 보자.

- | | |
|------------------------|-------------------------------|
| (1) a. 주어+동사(완전자동사) | ex) John sleeps. |
| b. 주어+동사(불완전자동사)+보어 | ex) John became the director. |
| c. 주어+동사(타동사)+목적어 | ex) John loves Mary. |
| d. 주어+동사(타동사)+간접+직접 | ex) John gave Mary a book. |
| e. 주어+동사(타동사)+목적어+목적보어 | ex) John thinks it false. |

이와 같이 영어의 모든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의 1형식 문형으로 분석되는데 술어(동사)가 문장의 기본 틀을 결정한다는 입장에는 차이가 없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에 궁금함이 있는 경우에 보충어(complements), 즉 부사어들이 추가되어 동사의 뜻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부사어를 추가하는 순서에서 영미인과 한국인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점이 바로 사고방식의 차이, 즉 어순의 차이인 것이다. 우리말과 영어의 어순을 비교해 보면, 우리말의 어순은 귀납적(inductive method)이라고 할 수 있다. 원동연이 제시한 예를 보자.

- (2) (나는) / 일요일에 / 우리 어머니와 함께 / 과일을 사기위해서 / 그 가게에 / 갔다.

위의 한국어 예문을 끝까지 듣기 전에는 결론이 ‘갔다’인지 ‘가지 않았다’인지 ‘늦었다’인지, 아니면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인지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해,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가 대개 생략되거나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사

구나 절 등의 설명이 따르고 결론적으로 동사가 끝에 온다. 이에 반해서 영어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하는 연역법(deductive method)을 사용한다(홍연숙, 1982).

위의 예문을 영어식 한국어(3.b)와 영어(3.c)로 옮겨보면 그 차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 (3) a. (나는)/ 일요일에/ 우리 어머니와 함께/ 과일을 사기위해서/ 그 가게에/ 갔다.
 (S) (1) (2) (3) (4) (5)
 b. 나는/ 갔다/ 그 가게로/ 과일을 사기위해서/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일요일에
 (S) (5) (4) (3) (2) (1)
 c. *I / went / to the store / to buy fruits / with my mother / on Sunday.*
 (S) (5) (4) (3) (2) (1)

송경안(1993)은 위와 같은 한국어와 영어의 일반적인 어순, 그리고 목적어와 부사 사이의 어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4)영 어: 어순이 고정적이며, 빈도부사가 특수한 위치에 놓이는 것
 말고는 일반적으로 목적어+ 부사 어순이 지배적이다.

(5)한국어: 자유어순인 한국어는 어순에서 상황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목적어와 부사 사이의 어순이 매우 자유로우며 양태부사와 동사가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방향 및 출처 부사를 제외하면 부사가 먼저 온다.

이런 식으로 영어문장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 어순으로 대다수의 영어문장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원동연, 2000).

주어(S) + 동사(V) + 누구에게(whom) + 무엇을(what) + 어디에(where)+ 왜(why) + 어떻게(how) + 언제(when)

그러므로 영어문장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어(S)+동사(V)의 한 가지 형식을 기본 문형으로 하고 있는데, 동사에 따라 궁금한 점이 있으면 누구에게(whom)+무엇을(what)+어디에(where)+왜(why)+어떻게(how)+언제(when)의 순서로 추가적인 정보가 올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영어식 사고구조이다. 때에 따라 순서가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화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능한 한 앞 쪽에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2) 5소 원칙

위의 예문 (3.b)에서 보았듯이, 한국식 한국어를 ‘나는/ 갔다/ 그 가게로/ 과일을 사기위해서/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일요일에’와 같이 영어식 한국어로 바꾸어 줄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는 (3. c)와 같이 각 한국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 영어 문장은 8품사로 분류된 낱말들이 앞에서 설명한 1대 원리에 의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영어에서는 8품사로 분류될 수 없는 말들, 즉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원에 있는 꽃(flower in the garden)’에서 ‘정원(garden)’이나 ‘꽃(flower)’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나와 있지만 ‘정원에 있는(in the garden)’이라는 독립된 단어는 없다. 이렇게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말을 만들어 쓰는 5가지 원칙을 ‘5소 원칙’이라고 한다(원동연, 2000). 5소 원칙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소원칙 1은 ‘명사 이용하기’로 찾고자하는 표현의 기본형이 명사 밖에 없는 단어는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전치사+명사)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큰 펜(big pen)’은 사전에 ‘큰’이라는 형용사 ‘big’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쉽게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책상 위에 있는 그 펜’에서 ‘책상위에 있는’을 영어로 옮기고자 할 때, 우리가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는 ‘책상(desk)’이라는 명사뿐이다. 이럴 경우 ‘desk’라는 명사예다 전치사를 붙여서 ‘책상 위에 있는(the pen/ on the desk)’이라는 형용사를 만든다. 이때 초보단계에서는 정확한 전치사를 붙이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기 보다는 우선 아무 전치사나 비슷한 것을 붙여가며 전치사에 대한 감각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

둘째, 소원칙 2는 ‘동사 이용하기’로서 찾고자 하는 표현의 기본형이 동사 밖에 없는 경우는 동사원형 앞에 to를 붙인다.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to 부정사’이다. 예를 들어,

- (6) a. 1단계 : 나는 / 한 권의 책을 / 원한다.(한국식 한국말)
- b. 2단계 : 나는 / 원한다 / 한권의 책을(영어식 한국말)
- c. 3단계 : I/ want/ a book.(영어)

이와 같은 문장에서는 각 한국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사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된다. 그러나 (7)과 같은 우리말 문장은 이와 다르다.

- (7) a. 1단계 : 나는 / **가기를** / 원한다.
 b. 2단계 : 나는 / 원한다 / **가기를**
 c. 3단계 : I / want / go.*

우리가 필요한 말은 ‘가기를’이라는 명사형이다. 하지만 사전에는 ‘가다’라는 뜻의 ‘go’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쓰고 싶은 말의 형태가 동사형 밖에 없는 경우에는 동사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만들어 쓴다.

- (8) I / want / to go.

셋째, 소원칙 3은 ‘형용사 이용하기’로 찾고자하는 기본형이 형용사/명사 밖에 없는 말은 형용사/명사 앞에 be 동사류를 붙여 동사처럼 쓴다. 또한 be 동사류 뒤에 명사를 붙여서 동사처럼 쓰는 원칙이다. 영어에서는 형용사나 명사가 술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계사라는 특수한 동사를 동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말의 경우 ‘철수가 잔다(John sleeps)’ ‘철수는 크다(John is tall)’에서 처럼 동사와 형용사가 의미 있는 형태적 기능적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 두 품사가 모두 술어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 (9) a. 우리 딸은 / 예쁘다.
 b. Our daughter / 예쁘다. (예쁜 : pretty → 형용사)

‘예쁘다’라는 동사는 사전에서 찾을 수 없고 ‘예쁜’이라는 형용사만 사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be동사 is를 형용사 pretty앞에 쓰면 ‘예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된다.

- c. Our daughter / **is pretty**.

예문 (10)은 명사를 be동사와 결합하여 동사처럼 쓴 예문이다.

- (10) a. 그 어린이들은 / 나의 사촌들이다.
 b. The children / 나의 사촌들이다. (나의 사촌들 → 명사)
 c. The children / **are my cousins**.

넷째, 소원칙 4는 접속사와 관계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확장하는 ‘접속사 이용하기’이다. 즉, 구(phrase)로 표현할 수 없는 긴 표현이 필요할 때 (접속

사+주어+동사) 형식으로 절을 만들어 다른 품사(명사절·형용사절·부사절)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사전에 없는 좀더 복잡한 표현이 필요할 때는 절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 “나는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문장에서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는 명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접속사와 일반 문장을 합한 명사절을 만들어 “I believe that you study hard.”라는 문장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등을 이용하여 형용사절을 만들어 쓸 수 있다. “나는 엄마가 만들어 주신 과자를 좋아 한다.”라는 문장을 만들고자 할 때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 (11) a. 큰 과자 → big cookie
 b. 책상위에 있는 / 과자 → cookie / on the desk
 c. 엄마가 만들어 주신 과자 → cookies / (?)

밑줄 친 부분을 하나의 문장 형태로 만들고 접속사로 묶어서 하나의 형용사처럼 쓴다.

- d. 나는/ 좋아한다 /과자를 / 접속사 +(엄마가 / 만들어 주셨다)
 e. I/ like/ the cookies / **that /my mother / made.**

마지막으로, 소원칙 5는 소원칙 2에 대한 몇 가지 예외들이다.

- (12) a. 1단계 : 나는 / 그녀가 / **춤추는 것을** / 보았다.
 b. 2단계 : 나는 / 보았다 / 그녀가 / 춤추는 것을
 c. 3단계 : I / saw / her / **dance.**

보통의 경우에는 ‘춤추는 것을’이라는 명사를 만들 때 동사 ‘춤추다’라는 동사 ‘dance’앞에 to를 붙여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dance’라는 동사의 원형을 쓴다. 이에 해당하는 예외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등에서 발견된다.

- (13) 사역동사(make, have, let)의 경우
 a. I made him to go there.*
 b. I made him go there.(○) 소원칙 2의 예외

- (14) 지각동사(see, hear, watch)의 경우
 a. I hear the birds to talk.*
 b. I hear the birds talk. (○) 소원칙 2의 예외

(13), (14)의 경우 “He had me doing the work all day long.”과 같은 문장에서 ‘doing’과 같은 현재 분사가 목적보어로 오는 경우들이 있지만 ‘100/10 학습원리’에 따라 부차적인 예외 사항은 기본적인 영어문법을 설명하는 원칙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본 원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고구조 변환 훈련을 통해 쓰기와 문법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급 수준의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게 하는 사고구조 변환법에 의한 영어 쓰기와 문법지도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전북 소재 전문대학의 1학년 신입생 63명의 단일 표본을 연구 대상으로 출발하였다. 이들은 1학기 중에 다른 한국인 교수로부터 영어회화 I 과목을 수강하였으나 쓰기와 관련된 별도의 강의는 수강하지 않았다. 특이점은 연구 대상자의 약 57%에 해당하는 37명이 실업계 고교 출신들로 실업계 고교의 특성상 오래 전부터 영어 학습에 흥미를 잃었거나 중단했던 학생들이 많아 이들의 전반적인 영어학력은 상당히 낮은 습득단계에 있다고 보여 진다.

이들에 대한 강의는 2005년 3월 초부터 6월 초까지 15주 동안 실용영어 교과목 시간을 이용해 주당 3 시간씩 본 연구자가 직접 이끌었다. 연구 모형에 대한 기초 조사를 도표로 나타내면 표1과 같다.

표 1
연구 모형

학교	대상자수	성별(명)		출신교별(명)		학습자료
전북소재 전문대학	63	남	여	인문계	실업계	5차원영어 E0901 (1대원리 5소원칙 익히기)
		28	35	26	37	

2. 한계점

이 연구 모형은 교육과정과 학과 운영의 여러 제한 때문에 학습효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대조 실험군을 형성하지 못하고 단일 표본을 대상으

로 실험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의 영어 학력의 차가 만점에서 12점까지 그 편차가 너무 크고, 실업계와 인문계 고교 출신 등 영어 학습 노출기간이 획일화되지 않아 결과 분석에 잡음변인을 제외한 순수변인에 의한 영향만을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물론 통계처리에서는 변량이 지나치게 낮거나(10점미만) 높은 경우(100점 만점), 그리고 2주(6시간) 이상 결석자는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지만, t-검정의 표준편차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피험자들의 영어 학력 편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차원 영어 학습법은 초급 영어 학습자들만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상위권 학습자를 포함한 다양한 수준과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단지 초급 수준의 영어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또 다른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고교 졸업생과 대학 신입생 수의 역전에서 오는 학생들의 심한 학력 격차와 불규칙한 출석률 등으로 인한 한계점은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 대학에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비슷한 여건이므로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우리의 영어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에 시사하는바가 많다고 본다.

3. 학습 절차

일반적인 수업진행 절차는 5차원 전면교육 학습 원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의 5가지 요소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을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학생들의 ‘심력’을 강화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방안의 하나로 매 수업마다 시작 후 ‘3분 묵상’ 시간을 통하여 정서력과 반응력을 자극하는 시나 수필 등의 좋은 글을 읽어주고 느낀 점을 간단히 적게 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수업 자료는 대덕교육학술연구원에서 5차원 영어학습법의 강의 교재로 제작한 ‘5차원 영어(5th Dimensional English) E0901’을 주교재로 사용하였다. E0901 교재는 전체 12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3단원은 1대원리 즉, 영어의 모든 문장은 결국 주어와 동사의 1형식이며, 동사가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영미인들은 whom(누구에게)+what(무엇을)+where(어디에)+why(왜)+how(어떻게)+when(언제)의 순서로 추가적인 정보를 배열한다는 영어의 1대원리를 익히기 위해 우리말을 영어식 어순으로 전환하는 문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4~12단원은 5소원칙을 익히기 위해 (1)한국어→(2)영어식 한국어→(3)영어로 전환하는 3단계

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영어식 사고체계에 친숙해지도록 유도하는 문장과 연습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5차원 영어’ 교재 시리즈는의 구성도 및 목표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5차원 영어 교재의 구성도 및 목표

CODE	권별 학습 목표	교재 내용
E0901	1대 원리 5소원칙 익히기	사고구조 변환법에 의한 1대 원리 5소 원칙을 영어로 쓰기; 영어 어순 익히기
E0902	속해독서능력 기르기	우리말 어순이 아닌 영어식 어순으로 읽기; 1대 원리에 의한 Sense Group 확장법
E0903	글 분석능력 기르기	영어 고공학습법; 영어객관화·주관화학습법
E0904	듣기 능력 기르기 1	발성구조 변환 학습법 훈련;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에 의한 Sense Group으로 듣기
E0905	듣기 능력 기르기 2	발성구조 변환 학습법 훈련;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에 의한 Sense Group으로 듣기
E0906	영어 쓰기 능력 기르기	한국어→영어식한국어→영어로의 3단계 영작

본 연구에서는 E0901 교재를 중심으로 5차원 영어의 핵심 원리인 1대원리 5소 원칙을 통해 영어식 사고와 어순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영어의 기본 문법과 쓰기를 통합하는 사고구조 변환훈련을 실시하였다.

1대 원리 5소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학기 초 약 2주간(6 시간)의 수업을 통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남은 학기 동안은 이 원칙들에 따라 한국어식 사고 구조를 영어식 사고 구조로 변환시켜주는 다양한 문제풀이 중심의 쓰기 활동을 하게 하게 된다. 사고구조 변환을 위한 문제 유형은 교재의 난이도에 따라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기 까지 학습자의 수준별로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다.

한국어식 사고구조를 영어식 사고구조로 바꿔주는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의 출발은 우리말을 통해 영어의 1대 원리 즉, 영어의 모든 문장은 주어+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사가 궁금한 말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부사어)가 일정한 순서로 온다는 원리를 습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문장은 ‘주어+동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1대 원리를 익히기 위한 학습 활동으로는 영어의 문장 5형식에 해당하는 (15)와 같은 문형의 우리말을 영어식 한국말로 바꾸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15) a. 주어+동사
 b. 주어+동사(be동사류+명사/형용사)
 c. 주어+동사/궁금한 말
 d. 주어+동사/궁금한 말(who+what)
 e. 주어+동사/궁금한 말(what+명사/형용사)

초급 수준의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1대원리 학습 예문을 보면 (16)과 같다.

- (16) a. 유미는/ 갔다.
 →유미는/갔다
 b. 그 강은/깨끗하다.
 →그 강은/이다/ 깨끗한
 c. 나는/ 몇 가지를 /기억했다.
 →나는/기억했다/몇 가지를
 d. 김선생님은 /우리에게/영어를/ 가르쳐주었다.
 →김선생님은/가르쳐주었다/우리에게/영어를
 e. 그는/나를/Jane이라고/ 부른다.
 →그는/부른다/나를/Jane이라고

(17)은 ‘주어+동사’에 추가적인 정보(부사어)인 where/why/how/when이 어떤 순서로 나열되는지를 보여준다.

- (17) a. 상호의 가족은/ 그 공향으로/ 갔다.
 →상호의 가족은 / 갔다/ 그 공향으로(where)
 b. 많은 사람들은/싼 물건들을 사기위해서/ 왔다.
 →많은 사람들은/ 왔다/싼 물건들을 사기위해(why)
 c. 인수는 잘 그릴 수 있다.
 →인수는/그릴 수 있다/잘(how)
 d. 그들은/11시 정각에/여기에서/만날것이다.
 →그들은/만날것이다/여기에서/11시 정각에(where+when)
 e.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일기를 /보여줄 수 있다.
 →당신은/보여줄 수 있다/ 나에게/당신의 일기를(who +what)

다음은 사전에 없는 말을 만들어 쓰는 5소 원칙의 학습절차이다. 기본형이 명사 밖에 없는 단어 ‘나의미래를 위한’을 다른 말로 만들려면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인다. ‘전치사+명사’가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는 소원칙 1의 예를 보자.

- (18) a. 1단계: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한**/계획을 /만들었다.
 b. 2단계: 나는/만들었다/계획을 /**나의 미래를 위한**
 c. 3단계: I made **a plan (for my future)**.

예문 (19)은 소원칙 2인 ‘동사 이용하기’의 예이다. 기본형이 동사 밖에 없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만들어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려면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인다.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하기를’ ‘설립할’과 같은 표현들은 사전에 없다. 이들의 기본형인 ‘설립하다(found)’를 찾아 그 앞에 to를 붙인다.

- (19) a. 1단계: 그는/ 그녀에게/학교를 /설립할 /많은 돈을/주었다.
 b. 2단계: 그는 / 주었다/ 그녀에게/많은 돈을/ **설립할**/ 학교를
 c. 3단계: He/ gave/her/much money/ **to found**/ a school.

소원칙 3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기본형이 형용사(명사)밖에 없는 단어를 동사로 만들려면 형용사(명사) 앞에 be 동사류를 붙이는 것으로 예문 (20)과 같다.

- (20) a. 1단계: 당신은/ **어리석다**.
 b. 2단계: 당신은/이다(be) 어리석은(형용사)
 c. 3단계: You/**are foolish**.

소원칙 4는 접속사+ 문장(주어+동사)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로 (21)은 명사절, (22), (23)은 형용사절의 예이며, (24)는 부사절로 쓰이는 사고구조 변환의 예문들이다.

- (21) a. 1단계: 나는/**당신이 영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b. 2단계: 나는/알고 있다/ 당신이 좋아한다는 것을/ 영어를
 c. 3단계: I know/ **that you like English**.

- (22) a. 1단계: 그는/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한 음악가를/ 만났다.
 b. 2단계: 그는/ 만났다/ 한 음악가를/ 연주하고 있는/그 바이올린을
 c. 3단계: He/ met/ a musician/ **who was playing/ the violin**.

- (23) a. 1단계: **내가 어제 샀던**/ 그 책은 많은 지도를 가지고 있다.
 b. 2단계: 그 책은/ (내가 샀던/ 어제)/가지고 있다/많은 지도를
 c. 3단계: The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has many maps.

- (24) a. 나는 내가 거기에 도착할 때 너에게 전화할거야.
 b. 나는 전화할거야 /너에게/**내가 도착할 때**/ 거기에
 c. I /will call/you/ **when I get**/ there.

소원칙 5는 소원칙 2에 대한 예외로 예문 (25)과 같다.

- (25) a. 1단계: 나는/ 우리 야구팀이/ **게임하는 것을**/지켜보았다.
 b. 2단계: 나는/지켜보았다/ 우리 야구팀이/ 게임하는 것을
 c. 3단계: I/ watched/ our baseball team/ **play the game**.

여기에 덧붙여, 학습자들은 부정사, 분사, 동명사 등의 준동사가 포함된 문장들을 1대원리 5소 원칙에 따라 생성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문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구조 변환 훈련과정에서 우리말을 영어식 한국말로 바꿀 때 주목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원동연, 2000).

첫째, 우리말에는 주어생략구문이 많기 때문에 생략된 말을 상상하면서 찾아내야 한다. 둘째, 수식방법이 서로 다른 것을 찾아내야 한다. 셋째, 복합 다문장을 단문장으로 분해해야 한다. 넷째, 따라서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도록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4. 학습 평가

학습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은 상위 20% 정도를 제외하고는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극히 낮으며, 어휘력 또한 대단히 낮은 상태에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적용된 사고구조 변환법의 핵심원리인 1대 원리는 영어의 기본적인 통사 배치 연습, 즉 어순 배열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평가 방법은 Brown(2004)을 참조하여 기초적인 구문 통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어휘 순서 재배열(reordering a scrambled set of words)’ 방식을 통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동일하게 하는 재측정방식(test-retest method)을 채택하였다. 물론 재측정 방식이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휘순서재배열 방식 역시 쓰기와 문법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만 TOEIC 등의 표준화 검사를 하기에는 위에서 제기한 몇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어 이를 고려한 방식이었다.

평가문항은 신용진(1990)에서 밝힌 것처럼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 개인의 재생(reproduction) 능력은 인지(recognition) 능력의 3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에서 원서를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학생은 중 3의 영어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의 글을 작문할 실력이 있으

면 극히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참작하여 (주)천재교육에서 발간한 현행 중학교 영어교과서(이병민 외, 2004)의 1·2·3학년 교재에 나오는 핵심 문형과 문장을 참조하여 우리말 문장에 해당하는 영어 어휘를 순서대로 재배열하는 형태의 25문항으로 작성하였다(부록 참조). 우리말 문장에 해당하는 영어 어휘 목록을 미리 제시한 것은 문법뿐만 아니라 어휘력에서도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피험자들의 영어 학력을 고려하여 어휘력 변인을 평가에서 배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

이들에 대한 사전 테스트와 영어학습태도 및 흥미도에 대한 사전 조사는 3월 첫째주 수업에서 실시하였다. 실험 실시 후 사후테스트는 15주째 마지막 주에 실시하였는데, 대상자 중 사후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6시간(2주) 이상 결석자, 그리고 변량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나온 대상자 등 13명을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고 전체 50명을 최종 표본분석 하였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간 Pearson상관계수는 .833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분석 및 토의

사고구조 변환학습법을 통하여 영어 쓰기와 문법을 통합지도 하였을 때의 학습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SPSS 10.0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점수는 25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이다. 점수대별 사전·사후 테스트의 빈도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점수대별 사전·사후테스트 빈도 분석

등급별	점수대	사전테스트			사후테스트		
		빈도(명)	비율(%)	누적(%)	빈도(명)	비율(%)	누적(%)
1	90-100	1	2	2	1	2	2
2	80-89	0	0	2	5	10	12
3	70-79	2	4	6	5	10	22
4	60-69	4	8	14	5	10	32
5	50-59	5	10	24	6	12	44
6	50이하	38	76	100	28	56	100
합계		50	100		50	100	

표 3을 보면 사전 테스트에서 5등급(50-59) 이상의 학습자 누적 비율이 24%에 불과 하던 것이 사후테스트에서는 44%로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쓰기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0점 이하의 6등급은 76%에서

56%로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은 아쉬운 점이다. 이점이 시사하는 바는, 수업의 교재와 난이도를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평이하게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본다. 표 4는 사전테스트와 사후 테스트 평가 결과를 대응표본 t-검정한 것이다.

표 4
사전테스트와 사후 테스트의 t-검정

	대상자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도
사전테스트	50	35.60	19.96	8.765	.000
사후테스트	50	50.12	20.48		

사고구조 변환 법에 의한 영어 쓰기와 문법 지도의 결과 사전테스트와 사후 테스트간의 평균의 차이가 14.52며 표준편차는 사전테스트가 19.96이며, 사후테스트가 20.48이다. t-검정 결과를 보면, t 값이 8.765, 유의수준은 .000이므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즉, 사후 검사 성적이 사전 검사 성적에 비해 매우 유의미하게 높다. 따라서 실험적으로 사용한 사고구조 변환법은 영어쓰기와 문법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사고구조 변환법에 의해 한국어식 사고체계를 영어식 사고체계로 변환하고자하는 실험 실시 전후의 영어에 대한 피험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및 흥미도 변화를 비교해 보면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영어학습 태도 및 흥미도 조사

번호	설문	내용	사전		사후	
			N	%	N	%
1	다른 교과목에 비해 영어를 좋아한다.	①매우그렇다	4	8	5	10
		②대체로그렇다	10	20	14	28
		③보통이다	13	26	15	30
		④별로그렇지않다	12	24	9	18
		⑤전혀그렇지않다	11	22	7	14
2	영어는 취업이나 나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교과목이다.	①매우그렇다	16	32	19	38
		②대체로그렇다	18	36	23	46
		③보통이다	8	16	5	10
		④별로그렇지않다	6	12	3	6
		⑤전혀그렇지않다	2	4	0	0

3	영어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볼 때 영어로 들어보려고 노력한다.	①매우그렇다	5	10	4	8
		②대체로그렇다	7	14	10	20
		③보통이다	16	32	20	40
		④별로그렇지않다	12	24	10	20
		⑤전혀그렇지않다	10	20	6	12
4	평소에 영어를 영미인들 처럼 영어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①매우그렇다	0	0	6	12
		②대체로그렇다	3	6	14	28
		③보통이다	7	14	12	24
		④별로그렇지않다	30	60	13	26
		⑤전혀그렇지않다	10	20	5	10
5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	①매우그렇다	0	0	2	4
		②대체로그렇다	5	10	12	24
		③보통이다	12	24	22	44
		④별로그렇지않다	14	28	8	16
		⑤전혀그렇지않다	19	38	4	8
6	혼자서 영어 문장이나 편지, 일기 등을 가끔 써보곤 한다.	①매우그렇다	0	0	3	6
		②대체로그렇다	2	4	5	10
		③보통이다	8	16	15	30
		④별로그렇지않다	29	58	17	34
		⑤전혀그렇지않다	11	22	10	20
7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 가장 자신이 없다고 느끼는 기능은?	①듣기	17	34	19	38
		②말하기	16	32	17	34
		③읽기	6	12	8	16
		④쓰기	11	22	6	12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태도 변화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를 좋아 한다’와 ‘영어는 취업이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와 같은 영어 과목에 대한 흥미도 및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둘째, ‘영어 노래나 영화를 영어로 들어보려고 노력 한다’, ‘영미인들 처럼 영어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 한다’, ‘영어 문장 등을 가끔 써보곤 한다’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와 같이 영어식 사고구조 변환과 관련된 질문에도 역시 긍정적인 대답이 현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셋째, 주목할만한 응답은 영어의 4가지 기능 중 가장 자신 없다고 느끼는 기능에 대한 질문에서 쓰는 쓰기 기능이 22%에서 12%로 감소함으로써, 역으로 쓰기 기능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 설문에서는 ‘이 강좌에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서술 반응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a. “영작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 강좌를 통해서 실력이 확실히 늘었다.”
- b. “영어에 대한 특이하면서도 쉬운 접근이다.”
- c. “특히 1대 원리 5소 원칙은 영어에 대한 탄탄한 기초지식을 제공해 주었다.”
- d.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영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느낌이 든다. 5차원 영어교재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문법만이 아닌 speaking과 writing실력이 향상됨을 몸소 느낀다.”

이와 같이 실험 실시 후 피험자들의 사고구조 변환법을 통한 5차원 영어 학습법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박남식(1982)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영어 교수법이 개발되어 정착되지 못하고, ESL상황에서나 적합한 외국 학자들의 영어교육 이론과 교수 학습법이 우리의 영어교육 현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비용 저효율의 영어교육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로서 ‘5차원 영어 학습법’을 소개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5차원 영어 학습법은 한국어식 사고체계를 영어식 사고체계로 전환시켜주는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발음되는 발성구조를 익히는 ‘발성구조 변환 학습법’이라는 두 가지 운영체계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서 ‘1대 원리 5소 원칙’을 중심으로 한 ‘사고구조 변환법’을 초급 수준의 대학 신입생들에게 적용하여 쓰기와 문법지도의 효과를 탐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휘순서 재배열 방식에 의한 재검사와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실험적으로 사용한 1대 원리 5소 원칙 중심의 사고구조 변환 방법을 적용한 결과 피험자들의 영어 쓰기와 문법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영어 학습태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영어과목에 대한 흥미도 및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어식 사고구조 변환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대답이 현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언어의 4가지 기능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쓰기 기능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5차원영어 학습법을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개선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기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5차원 영어 학습법을 적용한 수준별, 학교 급별의 다양한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다양한 수업 교재의 개발에 앞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Long(1991)이 지적한 것처럼 ‘의미 있는 문맥상황’에서 문법지도와 쓰기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편적이고 인위적인 단문 중심의 문장이 아닌 자연스런 스토리가 있는 실제성(authenticity)을 확보한 수업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5차원 영어학습법은 영어의 4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이다. 따라서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모든 영역에서 5차원 영어학습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셋째, 5차원 영어 학습법은 초급 영어 학습자들만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급 수준의 영어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상위권의 학습자들과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넷째, 5차원 영어학습법은 일선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직무연수에서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일선 영어교육 현장에서 5차원영어 학습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강사들에 대한 연수의 기회가 보다 심화 확대되어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TOEIC이나 TOEFL과 같이 영어 학력이 일정 단계에 이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와는 달리, 초급 단계에서부터 고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영어의 습득 단계별 및 4가지 기능별로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학습자들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박남식.(1982). 한국 영어교육의 문제점-회고와 반성. 한국영어교육100년. 서울: 시사영어사.
- 박혜숙.(1998). 문법지도가 제 2언어습득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53 (1), 157-178.
- 배두분. (2002). *영어교육학* 총론. 서울: 한국문화사.

- 손해용(2005. 07. 14). TOEFL 한국성적은....응시자수 세계 1위 성적은 103 위. *중앙일보*, pp. 12.
- 송경안(1993). 독일어 영어 한국어 어순의 비교연구. *독일언어문학*, 1, 258-275.
- 신용진.(1990). 영어교육공학 III. 서울: 한신문화사.
- 원동연 .(2000). *5차원 영어학습법*. 서울: 김영사
- _____. (2000). *5차원 전면교육 학습법*. 서울: 김영사
- 이영규.(2005. 07. 15). 유학 · 어학연수 작년 해외 나간 돈 7조. *파이낸셜 뉴스*, pp. 3.
- 홍연숙.(1982). 한국어와 영어에 나타난 한국인과 미국인의 의식구조. *한양대학교 인문논총*, 3, 129-151.
- Brown, H. D.(2004). *Language assessment: Principles and classroom practices*. White Plains, NY: Person Education.
- Ellis, R. (1989). Are classroom and naturalistic acquisition the same?: A study of the classroom acquisition of German word order rul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1, 305-328.
- _____. (1993). Structural syllabu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27(1), 91-113.
- Greenbaum, S., & Quirk, R. (1990)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Hornby, A. S. (1974).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ashen, S. D., & Terrell, T. D.(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New York: Pergamon Press.
- Krashen, S. D. (1993). The effect of formal grammar teaching: Still Peripheral. *TESOL Quarterly*, 27, 722-725.
- Long, M. H. (1991). Focus on form: A design feature i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In K. de Bot. R. Ginsberg & C. Kramsch (Eds.), *Foreign language research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pp. 39-52). Amsterdam: John Benjamins.
- Onions, C. T. (1904). *An advanced English syntax*.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don : Longman.
- Rutherford, W. (1987). *Second language grammar: Learning and*

teaching. London: Longman.
 Wilkins, D. (1976). *Notional syllabu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부 록

◆주어진 낱말들을 다시 배열하여 올바른 영어 문장을 만드시오.

1. 그들은 어제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
 (on the playground / they / soccer /played / yesterday)
 ⇒ _____.
2.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큰 사과를 하나를 주었다.
 (gave/ her mother/ her/ a big apple)
 ⇒ _____.
3. Sandy는 일요일에 드라이브 하는 것을 좋아한다.
 (drive/ Sandy/ to / Sunday/ on/ likes)
 ⇒ _____.
4. 우리는 지난 일요일에 공원에 갔다.
 (Sunday / we/ the park/ to /went/ last)
 ⇒ _____.
5. 나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원에 가고 싶다.
 (to go/ I'd like/ to the park/ because/ has/ it/ many interesting things)
 ⇒ _____.
6. 나는 흰색 셔츠가 간소(단순)하다고 생각해.
 (I / is simple/ the white shirt/think)
 ⇒ _____.
7. 나는 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갖고 싶어요.
 (want/ my own/ to have/ Internet site/ I)
 ⇒ _____.
8. 할일이 많았다.
 (were/ many things/ there/ to do)
 ⇒ _____.
9. I는 H 다음에 오는 글자이다.
 ("I" is/ that/ comes after/ the letter/ "H")

- ⇒ _____.
10. 그가 돌아 올 때 나는 그에게 말할 것이다.
(when/ to/ him /I'm going to/ he/ comes back/ talk)
⇒ _____.
11. 그들은 많이 웃고 쿠키 만드는 것을 즐긴다.
(a lot/ they laugh / making/ the cookies/ and/ enjoy
⇒ _____.
12.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체크했다.
(everything/ we/ needed/ checked / we/ that)
⇒ _____.
13. 이 아이가 그 창문을 깨트린 소년이다.
(the boy/this/ is/ the window/ who/ broke)
⇒ _____.
14. 당신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당신은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think /that way/if you/ you won't/worry/ from now on/have to)
⇒ _____.
15.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다.
(difficult/ to keep/ not/ in English/ a diary/ It is)
⇒ _____.
16. 나는 6개월 동안 그 가게에서 일해 왔다.
(for six months/ I / in the store/ worked/ have)
⇒ _____.
17. New Zealand는 내가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아름답다.
(I expected/ New Zealand/ than/ is / beautiful / I / more.
⇒ _____.
18. 숙제를 끝낸 후에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my homework/after/ I / went / finished/ I/ to bed)
⇒ _____.
19. 가장 오래되고 강한 우정이 때때로 가장 지키기 힘들다.
(friendships/the/to keep/ are/ oldest and strongest/ the /sometimes/ hardest)
⇒ _____.
20. 그는 모든 것이 새롭고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흥분되어 있었다.
(excited/ still/ everything/he was/new and impressive/ because/ was)
⇒ _____.

21. 나는 우리 집 옆으로 흘렀던 강을 기억했다.
(the river/remembered/ our house/ flowed//by/ I/ that/ had)
⇒ _____.
22. 나는 너무 긴장되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다.
(that/ can't breathe/ nervous/ I/ so/ get/ I/ well)
⇒ _____.
23. 그녀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돌본다.
(the poor/ she/ but also/ takes/ the old/ not only/ care of)
⇒ _____.
24. 그들은 우주비행사들을 우주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
(astronauts/ in/ a long time/ they/ learn/ space/ to/ want/ healthy/ for/ keep/ how to)
⇒ _____.
25. 내가 어제 샀던 그 책은 매우 재미있다.
(I bought/ the book/ which /very interesting/ is/ yesterday)
⇒ _____.

Applicable Level: college education, beginners to advanced level

Key word: Thought Structure Conversion Method(TSCM), word order, writing and grammar

김완호
원광보건대학 호텔경영과
570-750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Tel: 063-840-1363
Email: whkim@wkhc.ac.kr

Received:

Revised version:

Accepted: